광주·전남 최대 접전지 3곳 당선자

"세일즈 행정 주력…문화·교육특구 육성"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새로운 비전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잘사는 광주·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는 튼튼한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재선' 현역 단체장인 무소속 황일봉 후보의 벽을 뛰어넘어 큰 표차로 승리해 민선 5기 남구 행정을 이끌게 됐다.

최 당선자는 "4번의 검증절차를 거친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면서 도덕성·청렴성·구정철학 등에서 상대후보로부터 흠 잡힐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힘든 싸움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공천과정에서 큰 잡음이 발생하지 않은데다 무소속 연대에 맞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한 것도 승리의 밑거름으로 분석했다. 최 당선자는 남구의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사직공원과 송암산단 일대의 문화투자진흥지구 추진과 교육특구 조성을 꼽았다. 그는 "주민들과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산업 육성을 꼭 이뤄낼 것"이라며 "특히 예산분석을 명확하게 해 남구를 교육특구로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일즈 행정을 펼쳐 잘사는 남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남구민의 갈등과 분열을 소통과 화합으로 치유하겠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며 "주민의 화합을 통해 22만 남구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적이고 따뜻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줄서기 차단…분열·갈등 치유에 온 힘"

■임성훈 나주시장

"나주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자는 3일 새벽 "오래된 지역경제의 침체와 갈등·분열로 점철된 나주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성원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전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만큼 그의 당선은 값진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2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신정훈 후보에게 내리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선거 중반 조직이 탄탄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의 부인 주향득 후보가 무소속으로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쉽지 않은 싸움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임 당선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밑바닥을 다지며 유권자에게 다가간 결과 민선 5기 나주시정을 이끌게 됐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물론 중앙당의 주요 인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당 바람몰이'를 해온 것도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임 당선자는 "든든한 지역적 기반도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는 저를 시장에 당선되도록 보이지 곳에서 말 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혁신도시와 영산강 개발의 커다란 국책사업을 기회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잘사는, 활력이 넘치는 나주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더 이상 세력과 측근 정치에 줄서기를 강요당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최승렬·정칠헌기자 srchoi@

"군민 뜻 받들어 희망찬 장성 건설 매진"

■김양수 장성군수

"위대한 장성군민의 뜻을 받들어 잘 사는 장성, 희망가득 찬 장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일 지방선거에서 5대 민선 장성군수로 당선된 김양수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 기쁨의 크기가 더하다. 2년 반 전 재선거에서 이청 현 군수에게 당했던 패배를 앙갚음했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의 승리는 더 이상 장성이 부부군수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오명을 쓰고 있을 수 없다는 군민의 여론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자는 선거전 초반 이 군수에게 다소 밀렸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뒷심을 발휘하며 승리를 일궈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 나타났던 부부군수에 대한 동정심도 이번 투표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장성군청에서 10여년을 근무하다가 전남도로 자리를 옮겨 전남도 감사관, 비서실장, 행정혁신국장, 무안부군수, 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김 후보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살려 ▲조속한 군정 정상화 ▲투명한 인사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황룡강변 가족 관광명소 조성, 경로당에 반찬값 지원 등을 주요 공약 실철을 위해서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신중한 손놀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주시 서구 개표장이 마련된 염주동 빛고을 체육관에서 3일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단체장 7명 3선고지 등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 광주·전남지역 7명의 단체장들이 3선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현재 개표율이 55.8%에 이른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모두 68.27%의 득표율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민선 전남지사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것은 박 지사가 처음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광주에서는 유태명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이날 새벽 1시 현재 개표율이 63.0%인 가운데 51.84%(1만4142표)의 득표율로 2위인 임택 국민참여당 후보(32.72%·8926표)를 크게 앞서고 있어 3선 고지에 한 발짝 다가섰다.

전남에서도 5명의 단체장이 3선 등극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종득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의 경우 45.45%(1시 현재)의 득표율로 무소속 박홍률 후보(35.44%)를 1000여표차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무소속 이성웅 광양시장 후보(득표율 48.02%), 무소속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득표율 54.95%), 서삼석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득표율 55.47%), 김종식 완도군수 후보(득표율 49.71%) 등도 이날 밤 1시 현재 다른 후보를 현저히 앞서며 3선 고지로 줄달음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비롯, 당사자의 정치적 역량과 유권자의 3선 연임에 대한 거부감 등 변수가 워낙 많아 지금껏 광주·전남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자치단체장은 3명에 불과할 정도로 배출되기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 선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김지을기자 dok2000@